P2P대출 안전 자금관리 체계 구축

JB금융그룹-P2P대출 3개 기업 업무협약 체결
해킹피해 미연방지
투자정산업무 자동화 처리

JB금융지주는 지난 18일 오후 2시 여의도 JB빌딩 11층 대회의실에서 대표적인 핀테크 모델인 P2P대출 3개 기업과 'P2P대출 원리금수취권매입형 모델 공동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JB금융그룹이 P2P대출자와 투자자를 위한 안전한 자금관리 체계 구축에 발 벗고 나섰다.

JB금융지주는 지난 18일 오후 2시 여의도 JB빌딩 11층 대회의실에서 대표적인 핀테크 모델인 P2P대출 3개 기업과 'P2P대출 원리금수취권매입형 모델 공동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전북은행은 피플펀드, 광주은행은 투게더펀딩 및 줌펀드와 업무협약를 체결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각 사는 원리금수취권 매입형 모델을 공동 개발에 나서게 된다.

전북은행이 구축중인 자금관리 서비스는 고객의 투자금을 P2P중개회사 계좌를 경유하지 않고 은행보관계정에 보관해 투자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발된 신규금융서비스다.

이 서비스의 특징은 투자자의 투자금을 은행명의계정으로 보관·관리함으로써 P2P중개회사의 제3채권자로부터 (가)압류가 불가능하도록 함으로써 P2P중개회사가 파산, 휴.폐업 시 제3채권자의 강제집행으로부터 투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중국 등 해외에서 P2P중개회사의 해킹피해로 투자자의 투자금이 불법인출되는 사례가 속출한 바 있다. 이번 개발된 서비스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허출원한 기술을 적용해 해킹피해가 방지되도록 했으며, 대출자가 원리금을 납부 시 투자정산처리업무를 전북은행이 자동화 처리함으로써 투자신뢰도를 높였으며 동시에 P2P중개회사의 업무처리를 간소화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투자금관리 서비스 개발이 완료되면 투자자의 투자 현황 등 자금흐름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투자금 횡령, 부정 사용 등으로부터 투명하게 투자금이 관리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P2P 대출 원리금 수취권 매입형 모델'은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P2P대출에 대한 고객의 투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자금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jb금융그룹은 해당 서비스에 대한 특허출원까지 마친 상태다.

이에 앞서 JB금융그룹은 피플펀드와 업무협약을 맺고 은행통합모형 P2P사업모델을 제1금융원 최초로 선보인 바 있다.

이번 공동 개발 모델은 감독당국의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객의 투자금을 P2P기업의 계좌를 경유하지 않고 은행의 계정에 보관해 투자금의 안정성을 높이는 자금관리 서비스다.

관리자산은 은행의 계정관리를 통해 업체자산과 분리 관리돼 업체의 제3채권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등이 제한됨에 따라 강제집행, 경매, 보전처분 등이 제한되며, P2P금융회사가 파산한 경우에도 제3채권자의 강제집행으로부터 안전하게 투자금을 보호할 수 있다.

금융지주 관계자는 "아직 국내 P2P대출시장은 성장초기 단계로 풀어야할 숙제가 많은 상황이지만 P2P대출선진국에서와 같이 건전하게 성장 발전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이번 제휴된 업체와 공동으로 개발할 계획"이라며, "이번 서비스 개발로 P2P대출투자에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안재용 기자

전북 수출, 17개월만에 성장세로 돌아섰다

전년 대비 10.8% 증가 5억 1015만달러 기록

전북지역의 수출이 17개월만에 성장세로 돌아섰다.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가 발표한 '2017년 4월 무역동향'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0.8% 증가한 5억1,015만달러를 기록했다.

2015년 12월 이후 16개월간 지속돼온 마이너스 성장세에서 벗어 났다는 점에 의의를 둘수 있다.

이는 전북의 상위 수출 품목 및 국가로의 수출이 크게 성장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중국, 미국, 베트남 등 1~3위 국가로의 수출이 모두 두 자릿수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품목별로도 자동차(농기계 포함),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등 전북 지역 전체 수출 중 비중이 33.5%에 달하는 이들 1~3위 제품의 수출 증가율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전북지역의 1위 수출 품목은 '자동차'가 차지했으며, '기타 석유화학제품'(103.0%), '동제품'(79.8%) 등의 성장이 두드러진 반면, '농약 및 의약품'(-20.5%), '종이제품'(-6.4%) 등은 지난달에 이어 4월에도 감소세 보였다.

4월 농기계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9000% 이상의 성장세를 보였는데, 이는 지난 1월부터 무역통계 품목분류체계가 일부 변경되면서 '농업용 트랙터'가 자동차에서 농기계로 조정된 것에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별로 보면 올 1월부터 두 자릿수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對중국 수출이 4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47.8%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4월 對중국 수출은 '반도체'(-18.7%), '농약 및 의약품'(-55.5%)을 제외한 10위 이내 대부분의 제품이 두 자릿수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한 반면 '비누치약 및 화장품'의 대중국 수출은 올 들어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투르크메니스탄으로의 버스 수출이 올 들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4월에는 호주로의 승용차 수출(1124.8%)이 가세하며 전북 지역의 자동차 수출이 오랜만에 활력을 되찾았다.

한편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1.5% 증가한 3억6,208만 달러, 무역수지는 1억4,807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무역협회 김영준 전북본부장은 "지난해 무려 35.2%나 감소하며 전북 지역 수출을 부진의 늪으로 이끌었던, 자동차의 수출이 올해는 연초부터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며 힘을 내는 모습"이라며 " 사드 영향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도내 화장품 업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전북중기청, 중소기업 1일 현장연수 면접 단체 모집

전북중소기업청은 구직자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1일 현장연수 면접 사업'에 참여할 특성화고등학교 및 취업지원단체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1일 현장연수 면접사업'은 기존의 채용박람회가 어수선한 분위기속에서 짧은 시간의 면접을 통해 채용함으로써, 구인.구직자간의 상호 이해부족으로 단기간내에 이직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이 사업은 취업을 희망하는 특성화고 재학생과 일반 구직자가 중소기업 현장에서의 1일 연수를 통해 근무환경을 사전에 파악하고, 기업은 구직자의 근무태도 및 능력에 대한 심층 관찰을 통해 채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취업률을 제고하고 취업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할 수 있어 구인.구직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사업이다.

전북중기청은 지난해보다 규모를 확대해 특성화고 및 취업지원단체 등 총 8개 학교.단체를 선정해 총 450명 내외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6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1일 현장연수를 시행할 예정이다.

/안재용 기자

농진청-대한제과협회, 쌀빵 대중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농촌진흥청은 19일 (사)대한제과협회와 쌀빵 대중화를 통한 우리쌀 소비를 높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안정적 고품질 쌀가루 소비기반 구축, 제과·제빵관련 기술정보와 산업정보 교환, 대한제과협회의 밀가루 제품에 쌀가루를 10% 이상 섞어 사용하는 'R10운동' 적극 참여, 대한제과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쌀빵대중화 교육 지원, 제과·제빵 산업현장의 기술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을 협력한다.

농촌진흥청은 쌀가루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쌀가루 전용품종 육성과 재배단지 조성, 쌀가루 제분기술 개발 등 고품질 쌀가루를 이용한 가공용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대한제과협회에 소속한 자영제과점(동네빵집)은 R10운동에 참여하며 쌀빵 제품 생산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안재용 기자

임중식 전북조달청장, 목재문 생산업체 현장 방문

임중식 전북조달청장은 19일 성능인증제품 목재문 생산업체인 유한회사 에스지우드를 방문해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현황 등을 둘러본 후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전주시에 소재한 (유)에스지우드는 목재문을 주로 생산하는 제조업체(2012년 조달업체 등록)로 '충격흡수 장치가 구비된 목재문'이 성능인증(제24-210호)제품으로 지정됐다.

이 제품은 초·중·고등학교.유치원 및 공공기관 건축물 옥내 출입구에 사용되는 수동 개폐조작 목재출입문으로 탄성재질 충격흡수 장치, 친환경 손보호대가 구비돼 안전사고 예방이 가능하고 특수압축 오메가레일을 적용하여 마모로 인한 소음·변색·개폐기능저하 등의 문제점을 개선한 우수한 제품이다.

/안재용 기자

전북은행,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참가자 모집

전북은행과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는 도내 저소득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정 온가족 친정나들이' 참가자를 모집한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오랫동안 친정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이 가족과 함께 고향을 방문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난 한국에서의 생활을 격려하고 안정적으로 한국생활에 정착하도록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참가대상은 결혼이주여성이 내국인과 결혼 후 최근 3년간 친정방문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한국에 정착의지가 강하며 특별한 사연 또는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가정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왕복항공권, 여행자보험, 소정의 여행경비 등이 지원된다.

도내 14개 시.군에서 총 10가정을 선발할 예정이고, 접수기간은 6월 16일까지이며 선정발표는 6월 30일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다문화가정은 전북은행 또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방문 및 우편접수 하면 된다.

/안재용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서부신시가지 도청옆
전주시 완산구 홍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홍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홍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홍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